

요 약

Public

공공시장, 약해지는 버팀목 : 2016년 하반기 이후 시장 규모 하락 본격화될 듯

- 정부 SOC 예산 전년 대비 9.2% 감소, 2019년까지 지속 하락 예상
- 상반기 선거 및 경기 활성화 위하여 양호 그러나 하반기부터 하락 예상
- 하반기 물량 감소, 경쟁 강화, 금융 비용 상승에 대비해야



호황 속 불안 커지는 분양시장 : 양극화되는 분양시장

- 2,000만명을 넘어선 청약통장 가입자를 바탕으로 풍부한 신규 주택 수요
- 금리 인상,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 등 금융 여건 강화 및 공급 급증 부담
- 상품별, 지역별 차별화 현상 강력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대응 필요



뉴스테이, 임대주택사업의 아이콘 되나? : 정책 지원으로 급성장, '마중물'의 한계 극복 필요

- 관련법 제정 마무리, 담당 조직 위상 격상, 시범사업 착수로 우호적 환경 조성
- 촉진지구 지정으로 다양한 민간 택지에서 사업 추진 본격화
- 재무적 투자자 참여 확대, 마중물 투입에 따른 간접 규제는 위협 요인



재건축 본격적 시동, '부름' : 강남에서 서울 전역으로

- 9·1, 9·2대책 등 연이은 규제 완화로 침체 벗고 투자자의 관심 집중
- 대내외 경기 악화와 부동산시장 경색 등에 의한 리스크도 없지 않아
- 재건축 투자는 눈앞의 수익성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신중한 선택 필요



지방 주택시장 Go or Stay : 입주 물량 증가 부담

- 지방 주택시장 저금리, 정책 지원 등으로 호황세
- 2014년부터 입주 물량 증가세 2017년까지 지속 전망, 미분양 미입주 우려 증폭
- 수도권도 분양 물량 증가, 지방 주택시장을 통해 과잉 공급 대비 필요

PPP

시험대에 오른 민간투자사업 : 새로운 도약의 터닝 포인트 될까?

- BTO-a, BTO-rs 등 새로운 사업 방식과 정부의 강력한 활성화 의지 천명으로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
-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, 정책에 대한 신뢰성 부족 등 실제 활성화 여부는 불투명
- 민간의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 필요



해외건설, 먹구름 속으로 : 기회 요인보다는 위협 요인이 많아

- 2015년 수주 규모는 2008년(476억 달러) 이후 최저치 기록 전망
- 수주 확대에 필요한 기회 요인보다 저유가 지속, 신흥국 경기 불안, 안보 리스크 증가 등 위협 요인 산재
- AIB 사업 참여와 이란 건설시장 진출 등의 수주 전략 추진 필요